오를 땐 '급행' 기름값 내릴 땐 '완행'

고환율·세금 등 영향 하락폭 더뎌
시세차익 노린 얄팍한 상혼도 한몫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됐지만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기름값을 빨리 안 내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합리한 판매시스템과 환율 및 세금 등에 따른 착시현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값 ℓ당 1천500원대로**=국제 유가와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국내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경유값의 경우 ℓ당 1천500대까지 진입한 주유소가 크게 늘어났다.

19일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천693.2원인 반면, 경유값은 1천5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처음 1천500원대에 진입했다.

전남의 경우 평균 휘발유값은 1천690.5원이었다. 경유값 1천612원이었으나, 22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이 1천5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유값의 경우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광주지역에서 최고-최저차는 31원, 전남은 79원에 달했다.

◇**원화환율, 세금이 국내 유가하락 걸림돌**=18일 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에 따르면 10월 2주의 국제 경유가격은 배럴당 96.1달러로 7월 1주의 178.1달러에 비해 46.0% 급락했다. 그러나 국제 경유값을 원화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10월 2주에 ℓ당 797.8원으로 7월 1주의 1천168.8원보다 31.7% 내리는 데 그쳤다. 원화 환산시 하락폭이 14.3%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원·달러 환율은 10월 2주에 1천320원으로, 7월 1주의 1천43.5원에 비해 26.5% 급등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유소 가격에는 세금과 유통비용, 마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하락률을 계산하면 인하율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 즉 원화로 환산한 국제경유 가격이 50% 내려 이를 모두 국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하더라도 25% 정도만 인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0월 2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는 ℓ당 1천647.20원이지만 세금이 620.59원(유류세 470.84원, 부가세 149.75원)이며 유통비용과 마진은 100.87원으로 세전가격은 925.74원으로 판매가의 56.2% 수준이다.

국제제품 가격의 변동이 주유소가격까지 영향을 주려면 2~3주 정도 시차가 걸리는 점도 착시현상의 원인 중 하나다. 이밖에 정유사와 주유소가 국제유가의 상승기에는 가격을 빨리 올리고 하락기에는 천천히 내리는 '상술'까지 작용하고 있다.

광주 A주유소 관계자는 "정유사의 주간 판매가격은 자영 주유소에 파는 가격으로, 주유소 대부분은 월말에 정산할 때 정확한 공급가격을 알기 때문에 주간 시황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주유소들이 4, 5월에 손해본 부분을 일부 보전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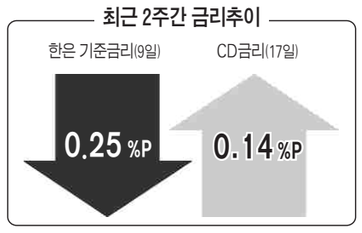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보해 베이징 식품박람회 참가

보해양조가 18~20일 중국 베이징 전시센터에서 열린 '국제찬음·식품박람회'에 참가, 복분자주·매취순 등 주류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보해는 지난 2003년 4월 중국 상하이에 '상하이순보해국제무역유한공사'를 설립, 연간 30만달러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기준금리 내렸는데 CD 금리 되레 올라

주택대출 이자 부담 '비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변동형 주택대출금리가 8%대 중반으로 치솟는 등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84~8.34%에 달한다. 이는 지난 주보다 0.12%포인트나 치솟은 것으로, 집을 담보로 빚을 낸 사람들이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나은행도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가 지난 주보다 0.12% 급등한 7.2~8.5%에 달하는 등 시중은행의 최고 대출금리가 8% 중반으로 뛰었다. 담보대출 금리급등은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CD금리는 지난 17일 현재 연 6.10%에 달한다. 이는 전날보다 0.02%포인트 오른 것으로, 2001년 1월 19일(6.16%) 이후 7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CD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이자부담은 연간 100만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CD금리는 지난해보다 1% 포인트 이상 올랐다. 주택대출의 95% 가량은 변동금리형이라는 점에서 CD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광주·전남 등 전국의 주택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8월 말 현재 광주지역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은 4조60억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8월(3조6천502억원)에 비해 9.8%(3천558억원) 늘었다. 전국도 8월 현재 은행권의 주택대출 잔액이 23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3%나 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이후 2주간 시중금리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완지구·방림주공 등 단지내 상가 분양 활기

광주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내 상가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사랑방닷컴'에 따르면 광주 수완지구와 주공 방림지구, 용봉2지구 등에서 단지내 상가 공급이 활기를 띄고 있다.

수완지구의 경우 한국주택공사의 '휴먼시아'와 우미건설의 '우미린', GS건설의 '자이' 등의 단지내 상가가 공급된다.

주공은 수완지구 C10-1블럭(603가구)에 들어서는 '휴먼시아'의 상가 5곳을 20~21일 공급한다. 분양면적은 38~77㎡이며, 분양예정가격은 1억790만원~2억3천210만원이다. 주공은 C9-1블럭(355가구)에서도 4개의 점포를 공급한다. 분양면적은 34~51㎡로, 공급예정가격은 9천100만~1억4천170만원이다.

수완지구 '우미 린'은 1, 2차 단지에 총 16개의 점포를 공급한다. 분양면적은 38㎡~134㎡로, 분양가는 3.3㎡당 500만~1천200만원이다. 수완지구 'GS자이' 상가는 2층 규모로, 분양면적은 45.8~91.8㎡로 이뤄져 있다. 3.3㎡당 분양가는 497만~979만원이다.

이밖에도 주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광주 방림지구와 용봉2지구에서 점포 8곳을 공급한다. 방림동 '휴먼시아' 상가는 27~56㎡형 5개 점포로, 분양예정가격은 7천130만~1억4천580만원이다. 용봉2지구 '휴먼시아' 상가는 3개의 점포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44㎡의 공급가격은 1억885만원선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차 쏘울 '1.6 디젤' '2.0 가솔린' 선보여

기아자동차가 기존의 쏘울 1.6가솔린 모델에 이어 쏘울 1.6디젤과 2.0가솔린 모델을 추가로 선보여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쏘울 1.6디젤과 2.0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이 각각 128마력, 142마력이며 ▲연비는 15.9km/ℓ, 12.9km/ℓ(자동변속기 기준)로 동급 최고수준이다.

기아차는 이 두 모델을 홍보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 4주간 매 주말마다 광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대한민국 CUV 쏘울 게릴라 로드쇼 〈사진〉'를 개최해 주말을 맞은 나들이 고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 타깃 고객층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쏘울 1.6디젤 모델의 가격은 1천640만~2천60만원이고, 2.0가솔린 모델은 1천670만~1천875만원(이상 자동변속기 포함)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소호명가' 전남 1·2 호점은 보성녹차

광주은행, 대한다업·보성녹차영농조합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소호명가(所湖名家)' 전남 1, 2호점으로 보성녹차를 선정했다.

1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녹차밭의 관광상품화에 앞장서온 ㈜대한다업(대표 장영섭)과 녹차캔 생산업체인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대표 임화춘)을 각각 '소호명가' 전남 1, 2호점으로 지정했다.

'소호명가'는 광주·전남의 소호(SOHO)기업 가운데 최고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정업체는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한도가 확대되며, 최고 2%의 우대금리 제공, 3천만원까지 신용카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1965년 창업 이래 고품질의 떡을 만들어온 '창억떡집'을 광주지역 '소호명가' 1호점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17일 보성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현안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제공과 대출, 투자 등에 대한 자문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현대·기아자동차 홍보 부사장에 김봉경씨

현대·기아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지난 17일자로 김봉경(54) 홍보담당 전무를 홍보담당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김 부사장은 경기도 강화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차 서울 성북영업소장, 기아차홍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